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 관련변인과의 인과모형 분석

최 정 미 · 우 희 정* · 이 숙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A Casual Model between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of Children and Related Variables

Choi, Jung Mi · Woo, Hee Jung* · Lee, Sook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Univ. Gwangju, Korea ·

Division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 Gwa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ausal model among mother related variables, child abuse, and children's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The sample subjects were 542 pairs of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first as well as eighth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to the children's abuse indicates that stress related to learning expectation and stress related to relationship with child are the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 to physical abuse and verbal abuse. Second,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child abuse to the children's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indicate that verbal abuse is the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 Third, looking at causal relations of the maternal variables (maternal parenting stress, marital satisfaction) and child abuse (physical abuse, verbal abuse, neglect) to the children's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maternal variables impact indirectly through the child abuse factor.

Key words: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child abuse, parenting stress

I. 서론

아동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 문제가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

문제는 6-10%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과중한 학업스트레스나 집단 따돌림과 같은 문제로 인해 아동의 부적응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기 부적응의 문제점은 표현과 증상이 청소년기만큼 현저하지 않고 유아기처럼 급격하지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37-C00046)

접수일: 2006년 5월 29일 채택일: 2006년 7월 28일

Corresponding Author: Choi, Jung Mi Tel: 82-62-530-1317 Fax: 82-62-530-1329

E-mail: shuma523@hanmail.net

않기 때문에 문제의 발견에 시간이 걸리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이에 축적되어 문제를 가중시키기 쉽다(Hamberg 1992). 특히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공격적이며 위축되고 산만하여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행동이 사회적, 정서적, 교육적 성장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응 문제가 초기에 개선되지 않으면 반복행동에 의해 차츰 고정화되어 성격의 자아구조 속에 자리를 잡아,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신병을 유발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반사회적 행동 내지는 비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많은 연구진들은 보고하고 있다(정원식 1969; Rogers 1951). 이러한 부적응 행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의 생활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에 따라 아동기에 시작된 부적응이 청소년기까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교사가 간과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동기의 정서적 부적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 환경으로서 개인에게 있어 가정의 제반 환경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 유발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들 나름의 지적, 정의적 특성을 심어주며 아동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 발달하게 되는데,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가치관, 부모의 인성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자이존중감 등과 같은 수많은 조건들의 가정의 제반 환경이 자녀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자녀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Horney(1964)는 아동들이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원인은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들의 양육태도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Hallahan과 Kauffman(1978)도 정서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들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가정의 특성과 관련시켜 조사한 연구들이 보고 되

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과 그 가정환경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지적하였고(Abidin 1992),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지각과 명령, 지각, 처벌과 같은 양육행동과 연관된다는 결과들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으며(Bierman & Smoot, 1991; Dadds 1987; Krech & Johnston 1992; Patterson 1982), 특별히 양육스트레스가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이나 비난을 많이 하는 등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하였음이 보고 되었다.(Webster-Stratton 1988; Whipple & Webster-Stratton 1991).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Patterson(198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자녀에게 더 짜증을 내며, 이는 다시 자녀의 공격적인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부모-자녀의 애착형성과 아동의 적응행동 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다(강차연 1999; 이순형·권영옥 1999; Cohn et al. 1992; Cowan et al. 1996; Crowell & Feldman 1988). 그러나 이러한 변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보다는 가족의 역동이나 가족체계와 관련된 복합적인 변인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이 아동행동문제와 가장 크게 관련된 요인임에도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인과관계를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와 같은 어머니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편, 학대받은 아동은 대부분 불행, 슬픔, 절망감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다(연진영 1992). 아동학대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에도 누적효과가 클 수 있으며, 단 한번의 학대에 의해서도 학대의 정도에 따라서는 아동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많은 연구들은 학대받은 아동의 후

유증이나 문제들을 보고하고 있다(김광일 1989). 아동학대의 결과는 타박상, 화상, 골절, 탈골 등의 상처가 흉터와 같은 흔적을 남기는 등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신경학적 이상을 초래하여 정신지체나 언어장애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피학대 아동이 보통 이상으로 과격하고, 자아개념이 낮으며, 신뢰심이 부족하고, 대인관계가 나빠며, 비정상적 애착의 태도를 보인다는데 동의하고 있다(Green 1985; Kent 1976; Martin 1981). 고성혜(1992)는 정서적 학대의 결과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즉시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그 중요성과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연구되어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정서적 학대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진영(1992) 역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 및 영향을 보고한 연구에서 우리가 흔히 학대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언어적 학대 및 방임은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보다도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언어적 학대임을 밝히고 있다. Ney(1987) 또한 언어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아동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학대는 아동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제반 연구들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이 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연진영 1992; Bousha & Twentyman 1984; Ney 1987).

Belsky(1984)는 스트레스 상황적 요소가 양육의 주요 결정 요소이며, 직접·간접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일 뿐 아니라 더 많은 명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주미 1992). Gelles(1982)는 좌절과 스트레스를 주요한 아동학대의 변인으로 보았는데 다양한 상황적 스트레스가 학대와 관련되거나 학대하는 사건으로 유도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Straus 1980; Smith 1984; Gelles 1982; Faller 1981; Janzen & Harris 1980), 어머니

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행동발달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서소희 1994), 어머니로서의 모성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어두운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박해미 1994), 자녀양육에 대하여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학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학력위주의 사회풍조, 입시경쟁, 부모들의 교육열로 인한 재정적, 정신적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그들은 자기 세력의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세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아동을 학대하게 된다. 아동이 어릴수록 무력하여 어른에게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부부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아동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Helper(1973)는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울 때 불만의 해소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상호 평등관계가 아닌 한쪽이 지배적인 관계일 때 아동학대를 유발하게 된다. 가족갈등적인 측면에서 보면 Justice와 Duncan(1976)은 아동학대 부모와 일반 부모가 경험한 생활사건의 양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고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연구들로부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는 자녀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관련 변인과 함께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아동학대를 매개변인으로 하고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를 어머니 관련변인으로 선정하여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에 대한 인

과모형을 구성하고, 각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의 영향은 어떠한가?
2.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과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방임)의 영향은 어떠한가?
3.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를 매개로 한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 1).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어머니들로 총 600쌍을 대상으로 배부, 회수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중 응답이 누락된 자료나 불성실하게 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54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Division	N(%)
Gender of child	male		268(49.4)
	female		274(50.6)
Grade of child		5 grade of elementary school	112(20.7)
		6 grade of elementary school	152(28.0)
		1 grade of middle school	159(29.3)
		2 grade of middle school	119(22.0)
Age of mother		under 37 years	183(33.8)
		38 - 41 years	178(32.8)
		over 42 years	181(33.4)
Education of mother		under high school	326(60.1)
		over university	216(39.9)

2. 측정 도구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번안하여 사용한 신숙재(1997)의 양육스트레스 30문항을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실제로 요인들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한 후에 주성분 분석과 오블리민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확인되었고,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1이 5.12, 요인 2가 1.86, 요인 3이 1.36이었으며, 각각의 설명되는 변량은 25.58%, 9.31%, 6.79%로 나타났다. 이 3개 요인의 문항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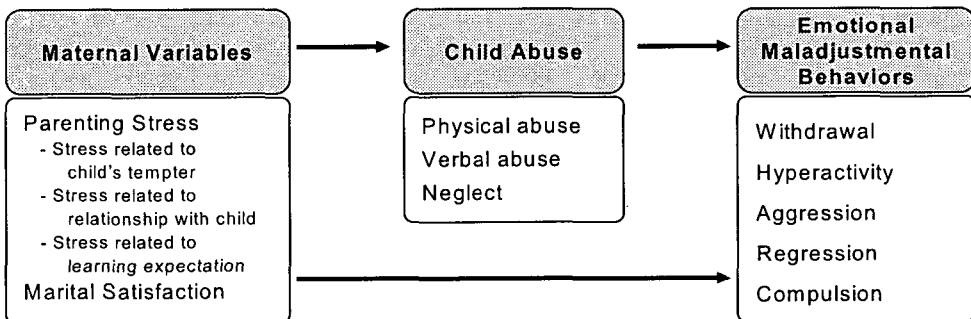


Figure 1. The causal model between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of children and related variables

에 기초하여 요인 1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요인 2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리고 요인 3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3개 요인을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변인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별로,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8문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9문항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3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20 문항이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각각 .84, .74, .71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 척도는 Roach, Frazier와 Bowden의 결혼만족도 척도(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로 나타났다.

3) 아동학대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대유무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방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신체적 학대는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의 폭력척도를, 신영화(1986)가 아동학대 연구를 위하여 번안 사용하고 최윤라(1989)가 수정·보완한 총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분류범주는 가벼운 형태의 학대(3개 항목), 상해에 위협에 처하게 하는 학대형태(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그 빈도에 따라 없다, 1년에 1번, 1년에 2-6번, 1달에 1-3번, 1주일에 1-3번에 답하도록 되어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

언어적 학대의 측정은 아동의 언어적 학대에 관한 재 연구(고성혜 1992; 신영화 1986)를 토대

로 연진영(1992)이 제작한 1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아동으로 하여금 제시된 예제에서 나타난 말들을 지난 일년 동안 들은 경험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다. 응답범주는 1년에 '한번도 없었다(없다)', '드물게 있었다(1년에 2-3번)', '가끔 있었다(1달에 2-3번)', '자주 있었다(1주일에 1-2번)'로 나누어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주고,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는 수준이 높은 것이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로 나타났다.

방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NCCAN(1986)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아동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제작한 최윤라(1989)의 16문항을 사용하였다. 분류범주는 9개 항목의 신체적 방임과 8개 항목의 교육적 방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 보통이다(2점), 그렇다(3점)의 3점 리커트형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3으로 나타났다.

4) 정서적 부적응 행동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측정도구로서는 Achenbach (1978)가 제작한 아동행동에 관한 질문지(Child Behavior Checklist)와 Quay(1972)가 제작한 정서적 부적응 질문지를 참고로 김영숙(1988)이 제작한 도구를 아동에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5개의 요인 즉,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으로 변인을 선정하여 각 요인마다 10개 문항씩 총 50문항으로, 응답은 범주형으로 '그렇다'에 1, '아니다'에 0으로 1에 가까울수록 정서적 부적응 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위축행동 .69, 과잉행동 .66, 공격행동 .69, 퇴행행동 .57, 강박행동 .7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학대의 영향과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LISREL 8.51 프로그램을 통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의 영향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제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2).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 변인들(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 제시한 바대로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는 아동

학대의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beta=.16, p<.00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beta=.09,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로 나타났다. 언어적 학대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beta=.17, p<.00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beta=.10,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로 나타났다. 방임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beta=.15, p<.001$), 결혼만족도($\beta=-.15,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학대의 영향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학대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2).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

Table 2. Correlation of relat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Stress related to child's temper											
2. Stress related to relationship with child	.47***										
3. Stress related to learning expectation	.46***	.40***									
4. Marital satisfaction	-.32***	-.51***	-.27***								
5. Physical abuse	.15***	.16***	.20***	-.06							
6. Verbal abuse	.15***	.17***	.22***	-.07	.74***						
7. Neglect	.17***	.14***	.20***	-.19***	.32***	.33***					
8. Withdrawal	.13**	.14***	.10*	-.12**	.18***	.18***	.18***				
9. Hyperactivity	.16***	.14***	.17***	-.10*	.34***	.35***	.21***	.32***			
10. Qggression	.17***	.14**	.09*	-.05	.37***	.36***	.11**	.35***	.59***		
11. Regression	.09*	.09*	.09*	-.10*	.23***	.24***	.22***	.49***	.44***	.34***	
12. Compulsion	.09*	.13**	.05	-.07	.30***	.34***	.18***	.55***	.50***	.48***	.61***

* p<.05, ** p<.01, *** p<.001

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 관련변인(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과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방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제시한 바대로 언어적 학대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축행동은 언어적 학대($\beta=.12, p<.0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beta=.14, p<.01$), 방임($\beta=.12, p<.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과잉행동은 언어적 학대($\beta=.18, p<.01$), 신체적 학대($\beta=.17, p<.0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beta=.10, p<.05$), 방임($\beta=.09,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공격행동은 신체적 학대($\beta=.20, p<.001$), 언어적 학대($\beta=.19, p<.00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beta=.12, p<.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6%로 나타났다. 퇴행행동은 언어적 학대($\beta=.19, p<.001$), 방임($\beta=.16,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8%로 나타났다. 강박행동은 언어적 학대($\beta=.33, p<.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혜련 1993)와 일치한다. 한편,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

Table 3. Regression to the child abus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R^2	F
Physical abuse	stress related to learning expectation	.20	.16***	.05	12.38***
	stress related to relationship with child	.06	.09*		
Verbal abuse	stress related to learning expectation	.35	.17***	.05	14.54***
	stress related to relationship with child	.10	.10*		
Neglect	stress related to learning expectation	.23	.15***	.06	16.12***
	marital satisfaction	-.05	-.15***		

* $p<.05$, *** $p<.001$

Table 4. Regression to the children's emotional maladjustmental behavior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R^2	F
Withdrawal	verbal abuse	.05	.12**	.07	12.35***
	stress related to relationship with child	.05	.14**		
	neglect	.07	.12**		
Hperactivity	verbal abuse	.08	.18**	.15	23.16***
	physical abuse	.12	.17**		
	stress related to child's temper	.04	.10*		
	neglect	.05	.09*		
Aggression	physical abuse	.13	.20***	.16	34.43***
	verbal abuse	.08	.19***		
	stress related to child's temper	.05	.12**		
Regression	verbal abuse	.07	.19***	.08	22.93***
	neglect	.08	.16***		
Compulsion	verbal abuse	.16	.33***	.11	65.55***

* $p<.05$, ** $p<.01$, *** $p<.001$

적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동학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어머니 관련변인(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과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에 미치는 선형 구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은 가설의 경로 도형을 기본도형으로 설정하고 부합도와 이론적 고려에 의해 현실자료에 보다 적합한 모델을 찾아가는 단일모델 방식을 추구하였다.

분석에서는 3개의 잠재변인(latent variables)이 설정되었는데, 잠재적 독립변인으로는 어머니 관련변인(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를 설정하고, 잠재적 종속변인으로는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이 설정되었다. 이 3개의 잠재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수로는 어머니 관련변인에는 양육스트레스(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척도가 이용되었고,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그리고 방임척도가 각각 사용되었으며,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은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

행동 그리고 강박행동척도가 각각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12개의 측정변수와 3개의 잠재변인들 간의 가능한 경로를 설정한 기본모델은 Fig. 2와 같다.

Fig.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모형(모형 1)은 정서적 부적응이 아동학대(β_{12})와 어머니 관련변인(γ_{12})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고 가정한 모델이다(β_{12} 와 γ_{12} 를 '0'으로 고정). 모든 분석과정에서 측정변수와 잠재변인간의 경로 중 $\lambda_{x11}, \lambda_{y11}, \lambda_{y42}$ 는 공통적으로 '1'로 고정되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모형1을 분석한 결과, 측정변수의 오차공변량들 중 총 14개의 추가지수(modification index)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측정변수들의 오차변량이 서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의 상관분석에서 예상되었던 것이며 분석결과의 낮은 부합도는 이러한 측정변수들 간의 공변량이 있음직한 것을 모델에서 고정특징수로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모형2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오차공변량이 큰 14개의 경로를 자유특징수로 바꾸었다.

모형2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 부합지수들이 모형1 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러나 모형1에서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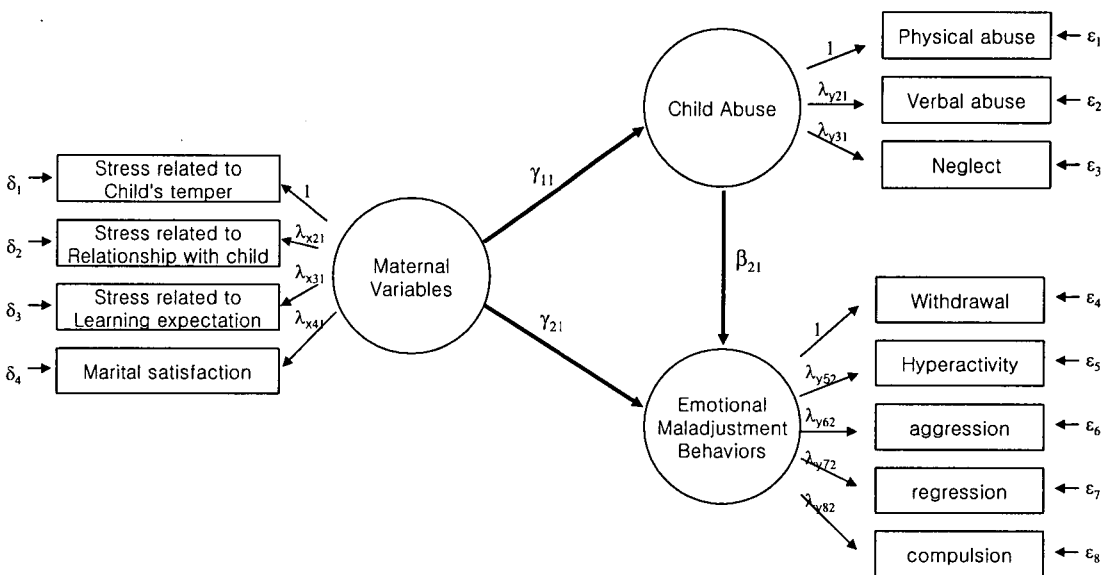


Figure 2. The causal model between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of children and related variables

특징수로 바꾼 6개의 오차공변량의 고정지수(T-Value)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관련변인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으로 가는 경로(γ_{21})의 고정지수(T-Value)가 -.0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 관련변인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으로 가는 경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형3에서는 어머니 관련변인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으로 가는 경로(γ_{21})를 '0'으로 고정시키고, 6가지의 오차공변량 또한 고정특징수로 변경하여 보다 간명한 모형을 추구해보았다.

모형 1,2,3의 분석결과 나타난 부합지수가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형1과 모형2의 부합도의 차이는 유의미하다($\chi^2=199.49$, $df=14$, $p<.001$). 따라서 모형

2는 간명도를 희생하고도 모형1보다는 현실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형2와 모형3의 부합도의 차이($\chi^2=.05$, $df=1$)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두 모형이 현실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합도를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간명한 모형3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Table 5에서 모형3의 부합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유일한 유의도 검증지수인 χ^2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론모델과 측정모델이 차이가 나지 않는, 즉 모형 합치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선형구조모형 분석에서 참조하는 전반적인 부합지수들인 GFI (.98), AGFI(.97), NNFI(.99), NFI(.97), 그리고 RMR

Table 5. Measures of goodness of fitness for the model

Model	χ^2	df	p	GFI	AGFI	NNFI	NFI	RMR
model 1(basic)	251.48	51	.000	.93	.89	.89	.89	.056
model 2(modify 1)	51.99	37	.052	.98	.97	.99	.98	.027
model 3(modify 2)	55.53	44	.114	.98	.97	.99	.97	.027
model 1:2	199.49	14	<.001					
model 2:3	.05	1	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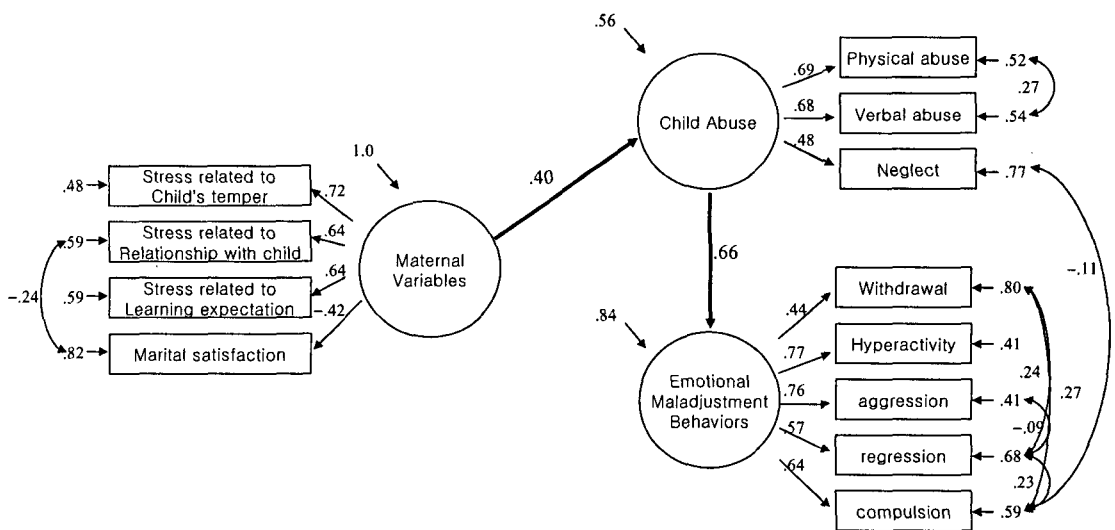


Figure 3. The modified causal model between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of children and related variables

(.027)이 매우 양호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이 현실과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3의 경로와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Figure 3에 제시되어 있다. Figure 3은 측정모델과 이론모델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측정모델을 살펴보면 λ_y 와 λ_x 값들이 비교적 큰 편으로 해당 측정변수들이 관련된 이론변수들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론모형을 살펴보면, 어머니 관련변인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과는 유의한 경로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해 +의 직접효과를 갖고, 아동학대는 다시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에 +의 직접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 관련변인은 아동학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의 영향은 어떠한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학대의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를 매개로한 어머니 관련변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동학대 요인 중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설명력은 5%로 나타났다. 방임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어떤 형태로든 자녀를 양육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를 설명하는데 가장 영

향력이 높은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였다. 즉 자녀가 공부를 스스로 잘못하고 매사에 어머니의 기대만큼 잘 따르지 않아 힘이 들 때 아동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으로 자녀의 학습이나 공부에 대한 기대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부담감이 자녀에게 학대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학교공부와 관련하여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구조, 사회풍토, 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가정에서 아동학대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결국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 사회 전반에 걸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가 어머니의 기대대로 잘 따르지 않아 힘이 들고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여길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며 이것의 영향을 받아 신체적, 언어적으로 학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관계가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이고 실제적인 지지의 강력한 자원이 되고 따라서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Belsky(1984)의 모델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이 중요하다(Goodnow & Collins 1996)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둘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설명하는데 어머니 관련변인(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과 아동 학대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언어적 학대는 아동의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및 강박행동 모두에 매우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가장 큰 주효과를 작용하는 변인이 언어적 학대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변인이 언어적 학대라고 보고한 연진영(199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에게서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들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위축, 과잉, 공격, 퇴행, 강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 행동발달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고(서소희 1994),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어머니로서의 모성경험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하고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쳐 가정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다(박해미 1994),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일 뿐 아니라 더 많은 명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주미 1992).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동의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자녀의 기질이 까다롭다고 인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며(김기현·조복희 2000; Mash & Johnston 1990; Webster-Stratton 1990), 부모나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더욱 중요하다(고성혜 1994; Levitt et al. 1986)고 하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자녀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므로 아동의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방임은 위축행동, 과잉행동, 퇴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대받은 아동은 공격적, 충동적이고 도전적, 반항적, 파괴적이며, 잔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벽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사회적 행동특성을 보인다. 이와 관련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대받은 아동집단에 대한 정서적 적응 상태를 밝힌 Kinard(1979)의 연구에서도 동료집단에 대한 공격행위, 과잉활동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고 한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은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없으며 복잡하고 성가신 행동을 하기 싫어하며 기분이 저조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짜증을 내는데, 이들은 대체로 공격적이고 비통제적이거나 또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기가 죽어 있으며 늘 조용하고 위축되어 있다(Brenner 1984). 또한 학대받은 아동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두려워하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고 자기를 거의 표현하지 않는 수줍음을 보이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긴장하여 신경증 및 우울증을 나타내며 쉽게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쉽게 포기하는 위축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Halperin 1979). 따라서 방임은 아동의 위축행동, 과잉행동, 퇴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학대의 인과모형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과는 유의한 경로는 없지만 아동학대에 대해 +의 직접효과를 갖고, 아동학대는 다시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에 +의 직접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학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모역할을 잘 하기가 어려워지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신숙재 1997), 아동학대를 더욱 많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의 존재는 어머니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결해주면서 자녀가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의 많은 노력과 댓가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기대에 따르지 않을 때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때로는 정보나 방법을 잘 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만약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 어머니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머니는 다시 힘을 얻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가 양육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정서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Minuchin 1974) 남편의 부모로서의 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어머니 관련변인(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은 아동학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관련변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변인도 포함시켜 연구를 확대할 것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만이 아닌 포괄적인 변인에 관한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하는 아동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을 어머니에 양육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어머니들이 습관적으로 자녀에게 학대하는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를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강차연(1999)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 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고성혜(1992) 아동학대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 석사논문.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김광일(1989) 가정폭력. 서울 : 탐구당
 김기현·조복희(2000) 맞벌이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김영숙(1988) 아동기 피학대 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 석사논문.
 김혜련(1993)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논문.
 박해미(1994) 자녀 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대 석사논문.
 서소희(1994) 자폐아 연령군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

스에 대한 조사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논문.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논문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정환경에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순형·권영옥(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4), 61-74.
 최윤라(1989)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 이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 Manual Pediatric psyc.
 Abidin RR(1992)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 Test Manual.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Achenbach TM(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 I. Boys Aged 6 Through 17.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478-488.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ierman KL & Smoot DC(1991) Linking family characteristics with poor peer relations: The mediating role of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314-356.
 Bousha D & Twentyman C(1984) Mother-child interactional style in abuse, neglect, and control groups ; Naturalistic observations in the h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106-114.
 Cohn DA, Cowan PA, Cowan C.P & Pearson J(1992) Mothers' and fathers' working model of childhood attachment relationship, parenting style, and child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17-431.
 Cowan PA, Cowan CP, & Pearson J(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53-63.
 Crowell JA, Feldman SS(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Dadds MR(1987) Families and the origi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Family Process, 26, 341-357.
 Faller KC(1981) Social work with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A manual of interdisciplinary practice-. New York : Free Press.
 Gelles RJ(1982) Problems in defining and labeling child abuse. In Starr, R.H.(Ed.) Child Abuse Prediction-Policy Implications. Cambridge: Balliger Publishing Company, 1-30.
 Green A(1985) Child abuse and neglect. In : The Clinical guide to child psychiatry edited by shaffer, D., Ehrhardt, A.A. & Greenhill, L.L., New York, The Free Press.

- Hallahan DP & Kauffman JM(1978) *Exceptional children :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Englewood Cliffs. New York : Prentice-Hall, Inc.
- Hamberg DA(1992)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and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On Hamberg, D.A., *Today's children: Creating a future for a generation in crisis*(pp.171-180): Random House.
- Helper RE(1973) The etiology of child abuse. *Pediatrics*, 5.
- Horney K(1964) *Self Analysis*,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Janzen C & Harris O(1980) *Family treatment in social work practice*, Itasca: Peacock Publishers, Inc.
- Justice B & Duncan DF(1976) Life crisis as a precursor to child abuse. *Public Health Reports*, Vol. 91, No. 2. March-April.
- Kent JT(1976) A Follow-up study of abused children. *Journal of Pediatior. Psycho1*, 1, 25.
- Kinard EM(1979) Emotional development in physically abus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0, 686-695.
- Krech KH & Johnston C(1992) The relationship of depressed mood and life stress to matern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115-122.
- Levitt MJ, Weber RA & Clark MC(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 Martin JA(1981) A longitudinal of the consequences of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 A microanalytic approa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Serial NO.190).
- Mash EJ & Johnston C(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313-328.
- Minuchin S(1974) *Family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ey PG(1987) Does verbal abuse leave deeper scars : A study of children and paren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2, 371-378.
- Patterson GR(1982) *Corecive family process*, Eugene, OP: Costalia.
- Patterson GR(1983) Stress :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In N.Garmezy, & M.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235-264). New York:Mcgraw-Hill.
- Quay HC(1972) *Patterns of aggression, withdrawl, and Immaturi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Smith SL(1984) Significant research findings in the etiology of child abuse. *Social Casework*, June.
- Straus MA(1980) Stress and child abuse, in R.Helfer & C.HKemp(eds.). *The Battered Chi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86-103.
- Webster-Stratton C(1988) Mother'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09-915.
- Webster-Stratton C(1990) Stress : A potential disrupter of parent perceptions and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9, 302-312.
- Whipple EE & Webster-Stratton C(1991)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Child Abuse & Neglect*, 15, 279-291.